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하라 - ④수도권 서남지역 책임지는 포교도량

쑥, 삼랑성... 전등사만의 힐링 콘텐츠 개발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인천과 수도권 서남권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수려한 연간 자연경관과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만나기 위해 연간 4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등사를 찾는다. 이들은 불교 안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를 만난다.

이미 전등사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이주민 축제 등을 매년 개최하며 지역 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인천·강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도 2006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황리에 개



강화 전등사 게이트볼 대회(사진 왼쪽)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모습(사진 오른쪽). 전등사는 강화 지역 특성을 활용한 힐링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쑥과 숲, 명상 조합한 '삼랑성 힐링벨트' 조성
동문 밖 한옥촌 건립 중
비불자 접근 유도 계획

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역대 최다 팀인 118개 팀이 출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등사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포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 중이다. 강화의 특산품인 쑥과 삼랑성 산길, 불교의 참선을 한 데 엮어내는 '삼랑성 힐링벨트' 조성은 이러한 방안 중 하나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전등사 경내에는 왕실에 진상하는 약초를 보관하기 위한 '진상약고(進上藥庫)'라는 약재 창고가 있었다"며 "쑥을 이용한 사찰 음식과 삼랑성 숲 속에서의 명상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지친 현대인들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랑성의 중심에 있는 전등사의 특성을 살리는 도량 정비도 계획 중이다. 경내는 철저히 불교적 신행으로 채우고 성 외곽에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등사는 동문 밖에 한옥촌을 조성 중이다. 올해 3체가 완성이 됐으며 내년까지 2채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서 불교가 낯선 일반인과 외국인들이 머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알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게 전등사의 복안이다.

범우 스님은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때로는 불교를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동문 밖 한옥이 완성되면 비불자들과 외국인들이 머물며 전통문

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다. 그 프로그램 안에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11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세대별 템플스테이 '어깨동무'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세대별로 진행되는 '어깨동무'는 기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아쉬움을 느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불교 체험이외에도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협동 공양과 대화 마당 등 서로 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범우 스님은 "전등

사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전등사는 삼랑성 안팎의 공간이 다르다. 올해는 성안 정비를 하며 신행도량으로의 면모를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성 밖 정비를 통해 전등사가 문화, 포교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역 특성 상 전등사는 불교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신행과 포교를 이끌어야 한다"며 "기존 단발성 행사들도 하나로 꿰어내 사람이 남는 행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관광사찰에서 경기 서남권 신행도량이자 세계 속의 문화 도량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전등사. 전등사가 보여주는 변화가 한국불교 미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경독송회, 좋은벗들 15년간 후원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11월 21일 해화동 법당에서 불교 수행단체 정토회 소속 (사)좋은벗들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된 수행단체로 현재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의 회원들은 된장, 메주,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옷가게를 운영하여 마련한 수익금을 토대로 현재까지 금강경 50만권을 전국 강원 및 사찰 등에 무료 배부하고,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영어, 불어, 독일 등 다국어로 제작하여 70만 권을 인쇄

해서 보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계 단체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만 원 이상씩 16년째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부터 좋은벗들에 해마다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보시해오고 있다.

좋은벗들은 국제평화, 인권, 북한난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한 NGO(비정부기구) 단체로 자체 발굴한 북한소식을 알리는 '오늘의 북한소식' 소식지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 개선과 국내에 들어온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 등 다양한 통일관련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이아은 기자



김재웅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대표가 좋은벗들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진치료강사 과정 모집

강사 김준형 예술치료전문가, 12월 22일부터 진행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심리를 치료하는 전문강사과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은 '제8기 사진예술치료 전문강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예술치료란 사진의 이미지를 미술·놀이 등 창작과정에 조직적으로 응용해 심리적인 장애를 감각시키는 치료기법이다. 상담자는 사진이미지를 이용해 피상담자가 생각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및 무의식 세계의 갈등과 좌절의 표출을 경험하게 돕게 된다.

이번 과정은 사진을 활용한 상담과 심리치료 및 예술매체치료에 관심 있는 사 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진예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기법들을 배울 수 있다.

수업은 서울사진치료연구소에서 5단계로 진행되며 일정은 1단계 12월 22·23일, 2단계 2013년 1월 12·13일, 3단계 1월 26·27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김준형 상담학박사로 예술치료전문가이자 한북대 영유아보육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신청방법은 이메일(junkim119@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67-2750

이아은 기자

“명심보감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문”

본각선교원, 신년부터 유불선통합 강의 개설

본각선교원(원장 고준환)은 2013년 1월 2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해 불교강좌와 시각(始覺)법회를 개최한다. 경전위주의 기초교리와 함께 유불선 통합 강의가 매일 진행된다.

시각법회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열린다. 고준환 교수(경기대 종교명예), 박준수 변호사가 1시간씩 번갈아가며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묘법연화경>, 목조선 비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유불선 통합강의는 △부처님 명심보감(강사 고준환·최동락 법사, 화요일 오후 5

시) △천문 풍수지리(김문용 한국자연지리학회장, 수요일 오후 2시) △생활속의 금강경(김원수 흥익대 명예교수, 목요일 오후 5시) △서산대사 삼가귀감강의(고준환·최동락 법사, 금요일 오후 4시) 등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심보감(明心寶鑑)이 유교 교양서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보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선 통합의 교양서다. 이번에 신설된 '부처님 명심보감'은 명심보감에 빠진 불교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게 했다.

고준환 원장은 "처음에 명심보감을 중국 명나라때 범립본이 지을때는 석가·마조·공자·맹자·노자·장자 등의 말씀을 통합하고 불교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을 고려해 명심보감이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선왕조 초기에 유입될 때, 억불승정책으로 불교내용은 통째로 빼고, 유교 교양서로 조작·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대사 삼가귀감' 강의는 조선 중기의 선승이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서산대사가 유가귀감, 도가교감, 선가귀감 등을 써 유불선 통합으로 삼가귀감을 펴낸 <삼가귀감>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본각선교원은 수강생들의 건성성불을

위한 상담실도 운영한다. 또한 주말단기 출가로 '깨달음 징검다리' 과정을 신설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불교입문과 경기명상, 위빠사나선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아바타코스도 신설했다. 불교 전통 수행법인 '위빠사나의 현대적 응용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아바타코스는 수련자의 의식수준에 맞는 자발적인 의식개발을 위한 것이다.

고준환 원장은 "본각선교원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불교강의와 법회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며 "불교를 접목한 다양한 강의를 유익적으로 학습해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62-4848 (cafe.daum.net/BonGagAcademy)

이아은 기자

중앙신도회, 임원연수 개최

15~16일 낙산사 일대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2월 15~16일 속초 국민은행연수원 및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2012 중앙신도회 임원연수'를 개최한다.

첫째 날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 설동근 동명대 총장 등의 리더십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집행부와 교구신도회, 신도단

체강간의 상견례 시간을 비롯해 제25대 중앙신도회 전체 임원의 교류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둘째 날에는 2012년 중앙위원회를 개최, 2012년 사업·결산보고와 2013년 사업·예산보고 및 향후 중흥회 4개년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02)733-7277

이아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